

이런! 또 이런... 벤투호 '중동의 늪'에 빠졌다



파울루 벤투 감독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중동 5개팀 만나는 최악의 조편성 이란과 4회 연속 맞붙어... 힘겨운 원정길 '침대 축구'와도 싸워야

박항서의 베트남과 대결 무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벤투호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악연'의 이란과 4회 연속 최종예선에서 맞붙는다.

한국은 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함께 A조로 묶였다.

B조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오만, 베트남으로 꾸려졌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개최국 일본, 아시아의 유럽으로 불리는 호주, 중동의 강호 사우디 등과 험난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최종예선 상대는 모두 중동팀이다.

홈 앤드 어웨이 원칙이 적용되는 최종예선에서 태극전사들은 힘겨운 중동 원정의 피로감과 더불어 중동의 악명 높은 '침대 축구'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더불어 한국은 이란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이번 카타르 월드컵까지 4회 연속으로 최종예선에서 대결하게 된 계 눈에 띈다.

특히 이란은 2013년 6월 울산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한 후 당시 사령탑을 맡았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한국 벤치를 향해 '주먹 감자'를 날리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공적'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전적에서 9승 9무 13패로 열세다. 특히 이란을 상대로 2011년 1월 아시안컵에서 1-0 승리 이후 10년 동안 6경기 연속 무승(2무 4패)을 달리고 있다.

이란을 제외하면 UAE(12승 5무 2패), 이라크(7승 11무 2패), 시리아(4승 3무 1패), 레바논(10승 3무 1패) 등과 상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모두 앞선다.

최종예선은 9월 2일(이라크·홈)·7일(레바논·원정), 10월 7일(시리아·홈)·12일(이란·원정), 11월 11일(UAE·홈)·16일(이라크·원정), 2022년 1월 27일(레바논·홈), 2022년 2월 1일(시리아·원정), 2022년 3월 24일(이란·홈)·29일(UAE·원정)에 열린다.

카타르 월드컵에 배정된 아시아의 본선행 티켓은 4.5장이다.

A·B조 상위 1~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 티켓 주인공을 결정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조 추첨이 끝난 뒤 "선수들과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 추첨 결과

▶ 12개국 2개 조,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풀리그

A조	B조
이란	일본
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중국
시리아	오만
레바논	베트남

▶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 직행
▶ 각 조 3위 팀, 플레이오프 진행 후 승리팀이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본선행 결정

자료/아시아축구연맹(AFC)

연합뉴스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상대 팀들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목표인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명함 이벤트'

5일 홈경기서 추첨행사로 회식비 지원

전남드래곤즈가 '명함 이벤트'를 통해 회식비를 쓴다.

전남은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경남FC와 K리그2 2021 1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먼데이 나잇 풋볼'로 진행되는 경기에 맞춰 전남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명함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은 게이트 안에 이벤트함을 설치해 명함을 모은 뒤 전반전 킥오프 시까지 5명 이상의 명함이 나온 회사를 골라 하프타임에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첨으로 3명을 선정해, 소속 회사에 식사권 형태로 회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회식 메뉴로는 장어구이, 삼계탕, 전복 물회 등 '여름 보양식'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DRAGONS FS(드래곤즈프렌즈샵·소액 광고사들 통칭)와 함께 진행한다.

한편 경기장 입장권 예매는 전남드래곤즈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현장 구매는 제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새 감독에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



손흥민(29)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드디어 새 감독을 찾았다.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47·포르투갈·사진) 전 울버햄프턴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토트넘 구단은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산투 감독을 우리의 새 감독으로 선임한다. 계약은 2023년까지"라고 밝혔다.

올해 4월 19일 조제 모리뉴 감독을 경질한 토트넘은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를 거쳐 두 달여 만

에 정식 사령탑을 임명했다.

발렌시아(스페인)와 포르투갈(포르투갈) 등을 이끈 산투 감독은 2017-2018 시즌 울버햄프턴의 사령탑을 맡아 올해 5월까지 4년간 팀을 지휘했다.

그의 부임 첫해에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에 속해 있던 울버햄프턴은 1위로 프리미어리그(EPL) 승격을 이뤄냈고, 2018-2019시즌부터 두 시즌 간 EPL 7위의 성적을 냈다. 2019-2020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8강 진출이라는 기록도 더했다.

/연합뉴스

브룩스, KIA 마운드 정상화 발판 될까?

부상에서 복귀 선발진에 승통 올림픽 휴식 전 4번 등판 가능



브룩스가 '호랑이 군단' 마운드 정상화의 발판이 될까?

KIA 타이거즈에는 악몽의 6월이었다. 멧덴에 이어 브룩스가 동시에 팔

꿈치 부상으로 이탈했고, 지난 시즌 필승조 역할을 해왔던 박준표의 부진과 부상도 겹쳤다.

대체 선발들로 꾸려진 선발진과 장현식·정해영에게 부담이 집중됐던 불펜은 지난 6월 6.22로 가장 높은 평균자책점을 합작했다. 선발 싸움에서부터 밀린 KIA는 장타력 실종된 타선의 부진까지 겹쳐 6월 6승 17패(승률 0.261)의 최악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새로운 7월 KIA는 비와 부상병의 복귀로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6월 마지막 날 경기를 치르려고 했던 KIA는 경기 개시 1시간을 앞두고 찾아온 폭우에 하루 경기를 쉬어야 했다.

덕분에 대체 선발 고민을 지운 KIA는 2일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두산베어스와의 주말 3연전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6월 '에이스' 역할을 해왔던 임기영은 4일이 아닌 6일로 선발 등판 날짜를 미뤄 11일 KT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로테이션이 구상됐다.

또 지난 6월 4일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했던 브룩스가 1일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선발진에 승통이



브룩스

트에게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1일 NC와의 경기에 앞서 "날짜대로 맞춰보면 (올림픽 휴식기까지) 브룩스가 4번 선발등판 할 수 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로테이션대로 갈 수 있다. 이의리가 2일 선발로 나서고, 브룩스가 던지면서 이번 주는 끝까지 대체 선발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임기영이 다음 화요일(6일) 선발 등판할 것이다. 이번 주 두 번

등판은 하지 않고, 다음 주에 등판 두 번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멧덴도 빠르면 11일, 늦어도 17일 1군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퓨처스리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5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좌완 하준영이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첫 등판을 소화했다.

하준영은 10개의 공으로 1이닝을 소화했다.

그리고 2일에는 전상현의 시즌 첫 피칭이 예정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아직 하준영의 복귀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도 부족하고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최소 4번 정도는 던져야 한다"면서도 "아프지 않고 몸 상태 좋았다고 한다. 긍정적이다. 몸상태에 따라 다음 스케줄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전상현도 비슷한 스케줄로 가려고 한다. 1이닝을 소화할 예정이다"고 전상현의 등판도 예고했다.

물론 부상에서 이제 회복한 선수들이고, 공백이 길었던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조반에 연투 등 없이 조심하면서 완벽하게 할 계획이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획대로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이뤄진다면 KIA는 올림픽 휴식기 이후에는 불펜진까지 강화해 마운드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

KIA가 부상의 6월을 지나 7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광현 결승 2루타 치고 2승 챙겼다

애리조나전 5이닝 1실점 타석에서 1안타 2타점 올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타석에서 시원한 결승 2루타를 치고, 마운드 위에서는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상대 타자를 제압했다.

오랫동안 멈춰 있던 승리 시계가, 마침내 움직였다.

김광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1실점 하며 시즌 2승(5패)째를 따냈다.

사사구 4개(볼넷 3개,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삼진 5개를 잡으며 위기를 넘겼다.

결승타의 주인공도 김광현이었다.

이날 김광현은 2회말 시원한 2루타를 치는 등 타석에서 1타수 1안타 2타점, 희생번트 1개로 활약했다.

김광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3.98에서 3.79로 낮췄다.

타격 성적도 15타수 1안타(타율 0.067)에서 16타수 2안타(타율 0.125), 2타점으로 좋아졌다.

결승타를 치고, 5이닝을 책임진 김광현의 활약 속에 세인트루이스는 7-4로 승리하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광현은 4월 24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 68일, 11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했다.

김광현은 0-0으로 맞선 2회말 2사 1, 2루, 볼 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상대 선발 라일스



1일 미국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에서 김광현이 2회 말 2루타를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스의 시속 149km 싱커를 받아쳤다.

타구는 시속 159km로 104m를 날아가 좌중간을 걸렀다. 주자 2명이 여유 있게 홈을 밟는 2타점 2루타였다.

/연합뉴스